

메타버스 공간에 ‘KB청춘마루’ 오픈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KB청춘마루 in 킴월드’(KB world)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KB청춘마루 in 킴월드’에서는 흥대 거리에 위치한 KB청춘마루 내부 전시와 루프탑 공간을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밀리터리 미로존, 점프맵에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차박존,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구성해 MZ세대 고객이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20일까지 ‘KB청춘마루 in 킴월드’ 오픈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KB청춘마루 in 킴월드’에서 인증샷을 찍고 해시태그(#청춘마루, #킴월드)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한 고객 50명을 추첨해 배스킨라빈스 모바일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심준선 기자

환율 불안 못 떨쳤다… 한미 상시 통화스와프 불발

공동성명 ‘외환동향 긴밀협약’… 이례적
구체적 실무방안 없이 선언적 문구 그저
중앙은행간 결정사안… 당장 체결 어려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인 ‘외환 협력’ 문구가 등장하면서 향후 한미 상시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당장 상시 스왑 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양국 중앙은행간 협상과정에서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 증진’이라는 구절도 함께 담겼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행정부 간 협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미 중앙은행이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해 한미 정상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나온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의 주체

는 양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부는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과 관련된 협력 문구는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며 “두 정상이 금융시장을 포함해 외환시장 전반의 안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금융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반면 원화는 글로벌 수출대금 결제 비중이 2.4%에 불과하는 등 세계 20위권 밖 통화로 평가된다.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유다.

미 연준이 내달부터 9조 달러에 이르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양적긴축(QT)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도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통화스와프를 선택지에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



사진=대통령실

수는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앙은행간 상설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금융공조체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통화스와프를 위한 외교적 물꼬는 댔으니 중앙은행간 소통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왕 비서관은 “미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통화스와

프 주체는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양국 중앙은행”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국 정상간 외환시장 안정 협력이 확인된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1270.7원으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날인 19일 1278.0원 대비 7.3원 하락안정됐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 기대감도 원화 약세 흐름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향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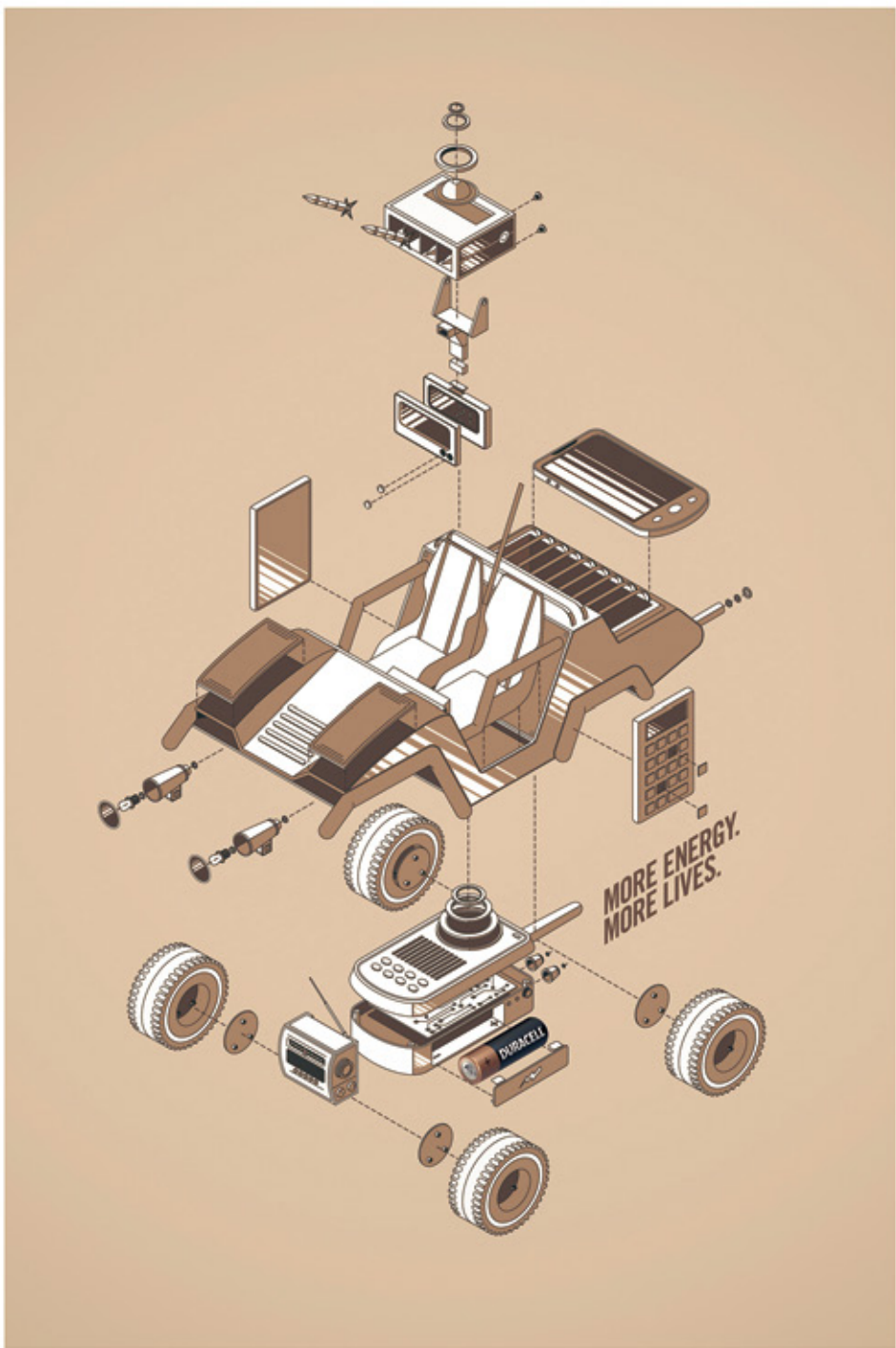
계속 협조할 것이라는 발표는 통화스와프 얘기가 협상 테이블에 또다시 오른다는 뜻”이라며 “단기적인 한시 스왑을 논의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상시 스왑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 직후 “현재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정책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정상출근·대면영업… 보험사, 일상 복귀

재택 대폭 축소, 대면영업 활성화 돌입
KB손해보험, 설계사·직원 대면교육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보험업계도 빠르게 일상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한때 50%에 달했던 재택근무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설계사·직원 대면교육도 다시 시작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현재 정상출근 체제를 운영 중이다.

앞서 수도권 50%, 비수도권 3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직원들의 대면소통 강화를 풀어주기 위해 최근 ‘더블런치 타임’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스손보는 2년간의 전원재택근무를 종료하고, 3일 출근·2일 재택형식의 ‘3+2 유연근무제’로 전환했다.

출근하는 3일 중 월요일과 수요일은 임직원 간 협력을 위한 ‘협업데이(Collaboration Day)’로 운영해 전 임직원이 출근하고 다른 하루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출근하는 방식이다.

에이스손보 관계자는 “이번 ‘3+2 유연근무제’ 도입은 직원 간 대면 소통을 통한 협력 문화를 다지고 직원 개개인의 수요와 생산성에 따른 유연한 업무 수행을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생명도 임산부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모두 정상출근 체제로 전환했다.

KB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며, 설계사 대면 교육도 재개했다.

한화생명도 임직원·설계사 대면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수원(라이프파크)을 다시금 오픈했다. 이달초 신입사원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 교육도 실시했다.

푸른현대생명도 2년만에 첫 임직원 대면 교육을 지난 16일 1박 2일간 가졌다.

보험업계는 일상모드로 전환과 발맞춰 그간 위축됐던 대면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보험사들의 설계사 채널 조회보험료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조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낸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특히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의 영업 위축세가 컸다. 생보상품의 경우 변액·종신보험 등 손보상품보다 보장내용이

복잡해 설계사 의존도가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말 기준 설계사 채널 조회보험료는 9,2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7,088억원으로 약 2,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 내부의 일상 전환 움직임에 따라 판매·영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2분기 이후 대면채널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모든 종류의 영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대면했을 때 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가입이나 은행권의 대출심사 등 금융업 전반이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 등 비재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한화생명 여승주 사정(가운데)과 상반기 입사 신입사원이 한화생명 연수원 LIFEPAK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활짝 웃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100% 반환” vs “70% 배상”… 결론 못낸 伊헬스케어펀드 분쟁

금감원, 환매중단 배상 미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투자원금 70% 선지급과 100% 보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2차 분조위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일정을 협의해 차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 약 1528억원 어치의 금융 상품을 판매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직원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목표 수익률은 5~6%다”, “상황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며 확정적 표현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탈리아 지

방정부에 재정난이 발생하면서 매출 채권은 회수되지 못했고,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종적으로 분조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5대 사모펀드 중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고, 독일헤리티지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2개만 남은 상태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Car
Client: Duracell
Agency: PUBLICIS LIMA

자동차
듀라셀
퍼블리시스 리마